



Since 1969 가톨릭대학교 부속병원 소식지

가톨릭 메디컬 타임스

No.2319 2025.10.1

창간 1969년 11월 14일
발행인 민장기 편집인 전영준
편집기획 가톨릭중앙의료원 홍보팀
E-mail cmcpr@catholic.ac.kr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Tel 02)3147-9471 Fax 02)3147-9531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 간호대학 · 서울성모병원 · 여의도성모병원 · 의정부성모병원 · 부천성모병원 · 은평성모병원 · 인천성모병원 · 성빈센트병원 · 대전성모병원

CMC 국내대표 유방암 치료의 허브

가톨릭대학교 전 부속병원, 심평원 유방암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국내 여성 암 발생률 1위인 유방암에 명실상부 국내 최고 수준 치료 역량 입증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부속병원 8개 전 병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주기 1차 유방암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휩쓸었다.

이번 적정성 평가는 우리나라 여성 암 발생률 1위인 유방암의 진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만 18세 이상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는 1주기 수술 중심 평가에서 암 진료 영역 전반에 대한 환자 중심, 성과 중심의 암 평가로 전환된 2주기 첫 평가다. 이에 가톨릭대 부속병원들은 1등급 행진을 연이으며 유방암 치료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을 입증했다. 유방암 환자들이 안심하고 믿고 치료받을 수 있는 최우수 의료기관임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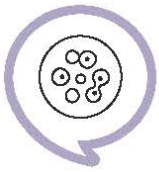
평가 항목은 ▲전문 인력 구성 ▲암 환자 대상 다학제 진료 비율 ▲암 확진 후 30일 이내 수술받은 환자 비율 ▲중증환자 비율 ▲암 환자 교육상담 실시율 ▲수술 후 퇴원 30일 이내 재입원을 ▲수술 사망률 ▲호스피스 상담률 등 12개 공통 지표와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도 ▲유방전절제술 후 방사선치료 시행률 등 2개 특이 지표를 포함해 유방암 치료의 구조, 과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서울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은 8회 연속 1등급, 여의도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은 7회 연속 1등급, 은평성모병원은 개원 이래 2년 연속 1등급을 받으며 유방암 치료 우수 의료기관임을 인정받

았다. 평가 종합점수는 의정부성모병원 96.3점, 부천성모병원 96.43점, 성빈센트병원 96.13점, 대전성모병원 96.72점을 기록하는 등 전체기관 평균(88.13점)은 물론, 상급종합병원 평균(93.75점)을 크게 웃도는 성적으로 가톨릭중앙의료원이 명실상부 국내 최고 수준의 유방암 치료를 제공하고 있음을 공고히 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유방암 치료법과 수술 이후 장기 생존자 증가 등 변화된 의료 환경을 반영하며 유방암을 비롯한 많은 여성암 환자에 최적의 치료를 돕고, 여성 환자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정확하고 안전한 의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장질환 연구에서 세포 소기관 상호작용이 핵심

대전성모 홍유아 교수, 약물 작용 기전 재해석하며 치료 전략 최적화 가능성 높여



홍유아 교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신장내과 홍유아 교수가 세포 내 소기관 간 상호작용이 신장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리뷰 논문을 통해 최적화된 신장질환의 치료 전략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진 세포질세망(ER)의 기능, 즉 다른 소기관과 맞닿아 단백질 생산·유지 및 칼슘·지방 양 조절 등의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에 주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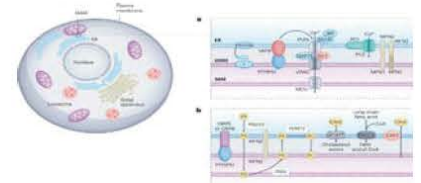
기존 결과에 더해 이번에 발표한 '신장질환에서 세포질세망(ER)과 매개하는 세포소기관 간 상호작용' 연구 결과를 종합, 신장질환 연구에서 소기관 간 상호작용을 핵심적인 병리 기전이자 잠재적 치료 표적으로 제시했다.

정상 상태에서는 이러한 상호작용이 세포의 에너지 대사, 물질 균형 등을 조율해 세포 항상성을 유지하지만, 신장질환에서는 연결의 형태와 기능이 변화해 세포 손상과 염증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이전에는 염증, 산화 스트레스, 섬유화 같은 결과 중심의 기전에 집중했다면, 이번 논문에서는 그보다 상위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포 소기관 간 상호작용의 이상을 새로운 연구·치료 방향으로 제안한 것이다.

특히 임상에서 일부 사용 중인 약물(SGLT2 억제제, 메트포르민 등)이 이러한 상호작용을 회복시켜 손상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포함, 약물 작용 기전을 재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치료 전략 최적화 가능성을 높였다.

홍유아 교수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신장 세포의 중



▲칼슘·지방 양 조절에서 세포질세망-미토콘드리아 간 상호작용의 역할

류별로 ER과 다른 소기관 간 상호작용의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며, 궁극적으로는 신장질환이 악화돼 투석으로 진행하기 전에 세포소기관의 상호작용을 복원해 신장 기능을 보존하는 맞춤형 치료법 개발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장·비뇨기과학 분야 대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 리뷰 신장학(Nature Reviews Nephrology)》(IF=39.8) 온라인판 최신호에 게재됐다.



mRNA로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새로운 항암 연구 성과

기초의학사업추진단 구희범 교수팀, 나노입자 개발로 폐 전이암 억제 효과 입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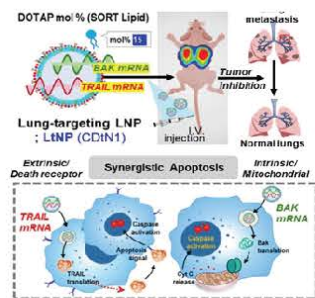
구희범 교수·박지선 박사·이예은 연구원(왼쪽부터)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 합성생물학사업단 구희범 교수(교신저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과학교실)와 박지선 박사(공동 제1저자, 이예은 연구원(공동 제1저자) 공동 연구팀이 암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만드는 유전자를 mRNA(전령 리보핵산) 형태로 전달하는 '지질 나노입자(Lipid Nanoparticle, LNP)'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폐

전이암 모델에서 항암 효과를 확인했다.

연구팀은 지질 나노입자를 활용했다. 지질 성분으로 아주 작은 입자를 만들어 그 안에 유전물질인 mRNA를 넣는다. 연구팀은 mRNA에 '암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유도하는 단백질 두 종류를 만드는 설계도'를 담았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질 나노입자는 특정 장기(폐)에만 도착하도록 설계되어, 다른 정상 장기를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에만 영향을 주도록 했다.

연구팀이 활용한 전략은 두 가지 다른 경로로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것이다. 첫 번째가 TRAIL(외부에서 신호를 보내 암세포가 죽도록 만드는 단백질)이며, 두 번째는 BAK(세포 내부에서 자살 명령을 내려 세포가 죽게 하는 단백질)로, 이를 동시에 발현하도록 했다. 덕분에 항암 효과는 단일 유전자만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으며, 폐 전이암 모델에서 지질 나노입자를 이용한 mRNA 전달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



▶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mRNA를 전달하는 지질 나노입자의 폐암 전이 모델에서의 항암 효과 확인 모식도

고 전이를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이번 연구는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을 비롯해 ▲중견연구 ▲유전자편집·제어·복원기반기술 개발사업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국제 학술지 《Chemical Engineering Journal》(IF=13.2) 온라인판에 게재됐으며 오는 10월호에 실릴 예정이다.



당뇨·빈혈·폐질환 동반 여성환자, '무증상 단백이상' 진단시 혈액암 주의

서울성모 박성수 교수팀, 고위험 환자에 대한 조기 식별 가능성 높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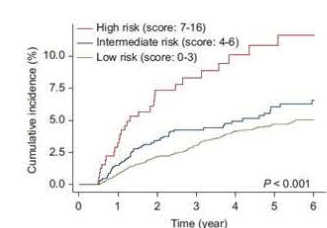
박성수·민창기·한승훈·최수인 교수(왼쪽부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 다발골수종센터 연구팀은 무증상 단백로림형증(MGUS) 환자가 혈액암인 다발골수종으로 진행될 위험을 높이는 5가지 위험인자를 규명하고, 이를 점수화한 '다발골수종 진행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

혈액병원 혈액내과 박성수(공동교신저자)·민창기(공동저

자) 교수와 가톨릭의대 약리학교실 한승훈(공동교신저자)·최수인(공동제1저자) 교수는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활용, 15년간 MGUS가 진단된 환자 5,361명을 대상으로 예후를 분석했다. MGUS는 혈액 속에 비정상적인 단백 클론 면역글로불린(단백질)이 검출되는 질환으로, 이번 연구 결과 기존에 알려진 것

보다 MGUS 환자의 악성 진행 위험도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 중 345명(6.4%)이 다발골수종으로 진단됐으며, 이 중 253명(73.3%)은 실제 증상이나 장기 손상이 나타나는 증상성 다발골수종으로 진행됐다. MGUS 환자의 다발골수종 진행 위험을 유의하게 높이는 위험인자는 ▲여성 ▲만성 폐질환 ▲



▶ 무증상 단백로림형증 환자의 '다발골수종 진행 예측 점수 모델'의 위험도에 따른 연구 결과, 고위험군의 다발골수종 발생률이 2.5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궤양 질환 ▲당뇨병 ▲비중양성 혈액질환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구팀은 이번 결과를 웹 기반 앱(R-Shiny)으로 무료 공유하고 있어, 국민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가 단위 보건 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분석과 예측 도구 첫 개발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주목을 받아 유럽종양학회 공식 학술지 《ESMO Open》(IF=8.3)에 최근 게재됐다.



중증 코로나19 환자, '자가 T세포 치료'로 완치

서울성모 이래석 교수팀, 혈액암 등 면역저하 환자 대상 첫 성공 사례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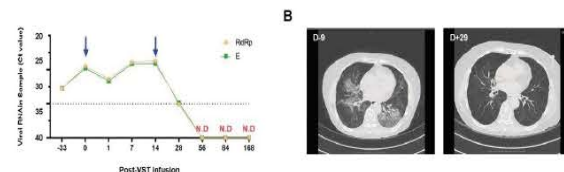
이래석 · 이동건 · 조석구 교수(왼쪽부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이래석 교수(1저자) · 이동건(교신저자), 혈액내과 조석구 교수(공동교신저자) 연구팀이 치료제가 없던 면역저하자 중증 코로나19 환자 3명에게 자가 유래 코로나19 항원 특이 T세포(VST)를 두 차례 투여해 모두 임상적으로 호전되고 바이러스가 완전히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상 환자들은 항바이러스제 치료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간 체내에 남아 중증 폐렴으로 악화된 상태였다. 연구팀은 환자 본인의 혈액에서 항원 특이 T세포를 추출·증식해 정맥으로 투여했다. 그 결과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이 모두 사라졌고, CT 영상에서 폐렴 병변도 소실됐다. PCR 검사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면역분석에서 투여된 T세포가 체내에서 수개월간 유지되는 것이 확인됐다.

이번 치료에 사용된 T세포는 루카스바이오(주) 플랫폼을 통해 유전자 조작 없이 생산됐다. 특히 세포 치료에서 우려되는 '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이나 '사이토카인 폭풍'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 없이 안정적인 면역 회복을 유도했다.

이래석 교수는 "이번 성과는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환자나 장기 감염 환자에서 부작용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바



▲CT 영상 비교 결과, 치료 전(좌) 폐렴 병변이 뚜렷하나 치료 후(우) 병변이 소실됐다.

이러스 억제에 성공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 생산 기간을 단축하고, 동종 세포은행을 활용해 신속 치료가 가능하도록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보건복지부 산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지원사업단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미국감염학회 공식 학술지 《Clinical Infectious Diseases》(IF=7.4)에 최근 게재됐다.



대사이상 지방간과 간 섬유화 연관성 세계 최초 규명

은평성모 이재준 교수팀, 특정 유전자(PNPLA3) 변이가 면역 매개 간 손상 촉진 확인



이재준 · 배시현 · 성필수 교수(왼쪽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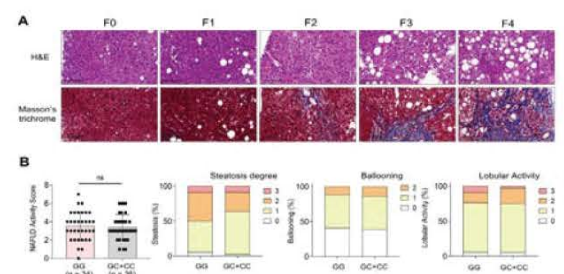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이재준 교수(제1저자), 배시현 교수,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성필수 교수(교신저자) 연구팀이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MASLD) 환자에서 특정 유전자(PNPLA3) 변이가 면역 매개 간 손상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연구팀은 2024년 은평성모병원과 서울성모병원에서

MASLD 환자 70명을 전향적으로 모집하고, 구강 상피세포 또는 간 생검 조직으로부터 PNPLA3 유전자형을 분석했다. 또한 간 조직에 대해서는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통해 CD3(T세포), CD68(대식세포) 침윤 정도를 정량 평가했다.

그 결과, PNPLA3 GG형 환자군(변이가 이뤄진 군)은 GC/CC형 환자군(변이가 없거나 일부 있는 군)에 비해 고도 섬유화 비율이 높았으며, 간문맥 주변 영역에서 면역세포의 침윤이 유의하게 증가하며,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양상이 발견됐다. 뿐만 아니라, GG형 환자군에서는 면역 반응을 활성화하거나 및 간 섬유화를 일으키는 유전자들의 발현도 현저히 높았다.

이번 연구는 MASLD 환자마다 보유한 유전자에 따라 면역 매개 간 손상이 진행되는 방식이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중요한 성과다. 특히, 간 내 염증과 면역 반응을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에서 CD3⁺ 및 CD68⁺ 면역세포의 침윤

조절할 수 있는 치료가 개발될 경우, 유전자상 고위험 환자에서 섬유화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간담체 분야 국제 학술지 《Journal of Gastroenterology》(IF=5.5) 온라인판에 최근 게재됐다.



폭음하는 여성, 연부조직 육종 발생률 3.7배 증가

성빈센트 주민욱 교수팀, 하루 평균 4잔 이상 음주 시 발생률 2.48배 높아져



주민욱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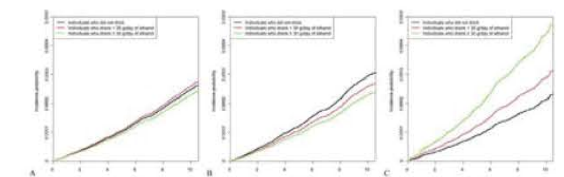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정형외과 주민욱 교수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2009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20세 이상 성인 남녀 3,937,745명을 2020년 12월까지 추적 관찰해 음주와 연부조직 육종 발생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술을 많이 마시는 여성일수록 연부조직 육종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팀이 평균 및 1회 음주량 등을 기준으로 음주와 연부조직 육종 발생률과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하루 평균 4잔 미만(에탄올 30g 미만) 및 4잔 이상(에탄올 30g 이상)으로 술을 마시는 여성은 술을 마시지 않는 여성에 비해 연부조직 육종

발생률이 각각 1.51배 및 2.48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회 음주량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 번에 3~4잔의 술을 마시는 여성은 연부조직 육종 발생이 1.35배, 5~7잔을 마시는 경우 1.73배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 번에 14잔 이상 폭음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발생률이 3.7배 높아져, 1회 음주량이 많아질수록 연부조직 육종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서는 음주와 연부조직 육종 발생 간의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연구팀은 성별에 따른 해부생리학적 특성으로 인한 대사이상 차이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음주와 육종 발생의 관련성은 여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음주의 해로운 영향에 취약한 모든 인구 집단이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A) 전체, (B) 남성, (C) 여성 참가자의 음주량에 따른 연부조직 육종 발생률

주민욱 교수는 "음주와 연부조직 육종 발생과의 연관성을 밝히고, 음주의 위해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화두를 던졌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성과는 정형외과 분야 최상위 학술지 《Clinical Orthopaedics and Related Research》(IF=4.4) 2025년 9월호에 특집 논문으로 선정돼, 편집장과의 인터뷰와 함께 게재됐다.



휴먼 디지털 트윈으로 여는 미래 의료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 인공지능뇌과학사업단 고태훈 교수



데이터 과학자에서 의료 AI 연구자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마친 고태훈 교수는 데이터마이닝을 전공하며 정보와 지식의 흐름을 연구했다. 데이터 과학을 토대로 출발했지만, 그는 일찍이 의료 분야에 눈을 돌렸다. 서울대학교병원 정보화실 조교수 시절,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체계화하는 경험은 그의 연구 방향을 결정지었다.

현재 그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가톨릭대학교 정보융합진흥원 빅데이터통합센터장, 서울성모병원 스마트병원 디지털 헬스케어본부 겸무, 대한의료정보학회 총무 이사로도 활동한다. 학계, 현장, 학회를 아우르는 역할을 통해 그는 '의료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4년에는 대한의료정보학회에서 젊은



연구자 1인에게만 수여되는 정보의과학 학술상을 받았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까지 거머쥐며 연구자로서의 성과와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인정받았다.



'의료와 인공지능'을 가르치다

고태훈 교수는 의예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료와 인공지능'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강의의 특징은 기술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상 현장에서 AI가 어떻게 의사의 결정을 돕고 환자의 치료를 바꿀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로 풀어낸다는 점이다.

“학생들에게 의료 인공지능은 특별한 첨단 기술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의 표준적인 도구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실제 병원에서 AI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면, 학생들의 시선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대학원 과정에서는 기초의학과 임상 의학을 아우르는 연구자들에게 AI 교육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 연구를 기획한다. 그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다양한 전공과 세대를 연결하는 협업 촉진자이기도 하다.



인공지능뇌과학사업단, 뇌와 AI의 융합 실험실

고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인공지능뇌과학사업단은 기초의학과 인공지능을 접목해 새

로운 연구 지평을 여는 곳이다. 뇌 영상 데이터, 생체 신호, 유전자·대사체 정보 등 성격이 다른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학습시키는 멀티모달 인공지능 연구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치매 환자의 뇌 MRI 영상, 환자의 유전자 정보, 일상 생활에서 측정되는 생체 신호를 함께 분석하면 훨씬 정확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개별 데이터만으로는 놓치기 쉬운 위험 신호를 다각도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연구는 인지장애 예측, 중환자실 환자의 위험도 분석, 응급 환자의 상태 평가 등 다양한 임상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단순한 기술 실험을 넘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실질적 도구가 되는 것이 목표다.



휴먼 디지털 트윈 :

가상의 인간을 만드는 도전

고 교수의 대표적 연구 주제는 휴먼 디지털 트윈이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가상의 모델로 구현하는 겁니다. 환자 맞춤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약물 반응이나 치료 효과를 미리 시험해볼 수 있다면 의료 현장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동안 인체 디지털 트윈은 구현 난도가 매우 높아 '미래의 기술'로만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이 급격히 발전하

면서 가능성의 문이 열리고 있다. AI가 실제 유전체와 유사한 데이터를 합성하거나, 가상의 환자 환경을 재현하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연구는 이제 '꿈'에서 '실험'의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고 교수는 이를 통해 희귀질환 연구, 신약 개발, 개인 맞춤형 치료의 혁신을 이끌고자 한다. 무엇보다 “실제 임상시험은 환자의 부담이 크고 윤리적 제약도 따르지만, 디지털 트윈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면서 연구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기초와 임상의 만남, 환자를 향하다

“의학 기술의 최종 목적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고 교수의 연구 철학은 단순하면서도 명확하다. 기초연구가 실제 환자 치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라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그는 중환자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다양한 임상과와 긴밀히 협력해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AI 모델을 임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검증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수업일”

교육자로서 고 교수의 철학은 분명하다.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되, 수업은 일부러 조금 어렵게 설계한다는 것. “쉬운 수업은 흥미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약간 어렵게 던져줘야 학생들이 도전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는 학생들이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연구 과정에서 협업과 소통 능력을 키우는 것을 강조한다. “커뮤니케이션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 철학은 학생들뿐 아니라, 연구 동료와의 협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SCI급 논문 30여 편, 다수의 국책 과제, 의료 데이터 표준화 연구 등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둔 고 교수지만, 그는 “아직 부족하다.”며 겸손함을 잃지 않는다. 그의 다음 목표는 중증질환과 희귀질환 AI 연구, 유전체와 대사체를 활용한 정밀 의학, 그리고 본격적인 휴먼 디지털 트윈 구축이다.

“인공지능은 결국 사람을 위한 기술이어야 합니다. 더 많은 환자를 이해하고, 더 나은 치료를 돕는 도구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장비로는 환자의 질환을, 그라운드에선 점수판을 밝히는 플레이어

의정부성모병원 방사선종양학팀 박승환 선임

야구는 이전에도, 지금도, 무수한 팬들의 사랑을 받는 스포츠다. 작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프로야구 관중이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야구를 보지 않던 사람들도 전과 다르게 '야구판'에 유입되고 있을 정도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중, 의정부성모병원 방사선종양학팀의 박승환 선임은 어릴 때부터 야구를 좋아하고 즐겨 하던 팬이었고, 지금은 사회인 야구 팀에서 '플레이어'로서 야구를 즐기고 있다. 야구가 주는 즐거움, 그리고 그것이 현재 병원에 근무하는 데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를 만나서 직접 들어보았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성모병원 방사선종양학팀에서 치료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승환입니다. 제 경력은 2012년 11월 서울 성모병원 핵의학팀에 입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12월부터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직하여 현재까지 이곳에서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주요 업무는 방사선을 이용해 암을 치료하는 치료방사선사로서, 환자에게 필요한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사선 치료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사회인 야구를 취미로 10년 이상 즐기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

기로 시작해서, 어떻게 취미로 이어 가고 계신지요?

어렸을 때부터 전라남도 광주에서 자랐습니다. 광주하면 야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함께 야구를 즐기며 취미로 이어왔습니다. 그런 경험이 쌓여 야구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고, 이후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사하게 되었을 때, 병원 방사선사 전체 회식에서 병원 동호회 중에 야구 동호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타 부서 선생님들과의 친목 도모 및 제대로 야구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지금까지 사회인 야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야구를 통해 얻은 즐거움은 물론, 운동을 통해 병원 선생님들과의 친밀감을 쌓을 수 있어 정말 의미 있는 취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나 순간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지요? 가장 즐거웠던 경기나 플레이가 있었다면?

제가 '나인캐럿 팀'(의정부성모병원 동호회 기반 팀)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야구장이 아닌 풀밭에서 연습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제가 봐도 실력도 형편없는 오히려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과 함께 5년 동안 꾸준히 연습

하며 성장한 결과, 2019년에는 리그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보람이었습니다.

또한, 작년 리그 결승전에서는 경기 중반까지 끌려갔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막판 뒷심을 발휘해 끝내기 안타로 역전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던 순간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순간의 짜릿함은 정말 특별했고, 팀원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면서 더욱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취미를 즐기는 것이, 현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다양한 운동을 즐기면서 체력과 정신적인 회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일하다 보면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요구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야구, 축구와 같은 팀 스포츠를 하면서 협동과 소통의 중요성을 배우고, 런닝을 하면서 자기관리와 끈기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



험들이 업무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보고 싶은 활동이나 계획이 있다면? 목표나 버킷리스트가 있으신가요?

먼저, 꾸준히 런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안에 마라톤 하프코스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꾸준한 훈련을 통해 체력을 더욱 끌어올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또한, 야구가 너무 재밌고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일반인들도 취득할 수 있는 야구 심판 연수 교육에 참여해 야구 심판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야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새로운 도전을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주위 동료들이나 환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저는 항상 제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수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함께 업무를 수행하거나 취미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어서, 언제나 긍정적인 에너지와 협력 속에서 일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제 자신도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돕고 격려하며, 함께 win-win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암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질병을 치료하는 일은 언제나 큰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환자분들이 겪고 계신 고통과 두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회복을 돕는 일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환자분들께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진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치료방사선사가 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하며, 어려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밝은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뇌혈관 질환의 정밀 의료 실현 대전성모병원 뇌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뇌신경센터는 뇌신경계 질환의 병인 규명,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의 교수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뇌졸중, 치매, 뇌전증, 뇌종양, 파킨슨병, 척추질환 등의 질병들은 호발성 질환으로 현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발병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상당 이에 뇌신경센터에서는 이런 고통과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 또 미래에 그들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진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전성모병원 뇌신경센터 의료진



대표번호 : 1577-0888



뇌신경센터장 신경외과
이형진 교수

진료 분야: 뇌혈관질환, 두부외상,
뇌종양, 두통, 뇌혈관 내 수술



영상의학과
김현정 교수

진료 분야: 신경중재치료,
신경두경부영상학



신경외과
기희종 교수

진료 분야: 뇌혈관 및 뇌혈관 내
치료, 뇌졸중, 두부외상, 치매



경험에 근거하는 정확한 의료 행위



대전성모병원 뇌신경센터 김현정, 이형진 교수팀은 지난 2021년 2월, '뇌혈관조영술 및 중재적시술' 5,000례를 달성했으며, 2025년 9월까지 뇌혈관조영술 1,641건 및 중재적시술 474건을 추가로 진행했다. (총 누적: 7,115건)

뇌혈관 내 중재적시술은 뇌동맥류, 혈관기형, 동맥경화증, 외상, 종양으로 인한 혈관의 파열, 협착 및 폐색, 급성 출혈 등 뇌, 척추, 두경부의 혈관성 질환을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의학 분야로, 시타구니 대퇴동맥을 통해 넣는 가는 관을 이용해 코일 또는 색전물질로 출혈 부위를 막거나 막히거나 좁아진 혈관을 재개통해주는 시술이다.



전문성이 만들어낸 정밀 의료



대전성모병원 뇌신경센터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신경과, 신경외과, 신경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로 구성, 뇌혈관 내 중재적시술에서 수술까지 24시간 뇌혈관질환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영상의학과 김현정 교수와 신경외과 이형진 교수는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가 인정한 인증의로, 급성 뇌경색의 최신 연구를 비롯 환자 맞춤형 진단과 적합한 치료를 통한 정밀 의료를 실현하고 있다.



뇌신경센터
연혁

2000

뇌신경센터 개소(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
학과, 소아청소년과 협진)

2008

뇌신경센터 확장 이전

2013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의료기관 인증

2016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인증기관 지정

2021

뇌혈관조영술 및 중재적
시술 5,000례 달성

뇌혈관조영장비 ' Artis
ICONO Biplane' 도입

신경센터

가 함께 7개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수의 환자들이 고통과 절망에 신음하고 있다.
있다.



신경과
이상봉 교수

진료 분야 : 뇌혈관질환, 치매, 뇌전
증(간질), 파킨슨병, 두통, 어지러움



신경과
이택준 교수

진료 분야 : 말초신경병, 근육질환,
척수질환, 두통, 어지러움

신속 ·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장비와 환경



대전성모병원 뇌신경센터에는 뇌혈관 조영술, 중재적 시술 등에 사용되는 장비와 진료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초음파 뇌혈류 검사기, 신경 전도속도 검사기 등을 포함하여 많은 전문장비를 운영 중이다.

추가적으로, 대전성모병원은 뇌신경센터 전용 영상의학 양방향 혈관조영장비 '아티스 아이코노 바이플랜(Artis ICONO Biplane)'을 2021년에 도입, 뇌혈관질환을 다루는데 있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했다.

김현정 · 기화중 교수팀,
보건복지부 '뇌신경계질환
문제해결 기술개발사업' 선정

김현정 교수,
2025 보건 의료 R&D
우수 성과 30선 선정

2023

2024

2025

심평원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0회
연속 1등급

대전성모병원 뇌신경센터

뇌졸중 진단의 한계에 도전하다!

대전성모병원 김현정 교수팀, 보건 의료 R&D 우수성과 30선 선정



세계 첫 CT 측부혈류영상·혈관영상 기술 개발로
허혈성 뇌졸중 정밀 진단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김현정 교수팀(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기화중 신경외과 교수)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3년 뇌신경계질환 임상현장 문제해결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2025년 보건 의료 R&D 우수성과 30선'에 선정됐다.

김현정 교수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CT 측부혈류영상과 혈관영상 촬영 기술은 허혈성 뇌졸중(뇌경색)의 정밀 진단과 한 번의 촬영으로 동맥영상, 정맥영상, Dynamic 혈관영상을 동시에 생성할 수 있어 진단 기술의 정확성과 진단 속도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 기존 진단방식의 한계에 따른 신기술의 필요성

뇌졸중은 세계 3대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이며, 그 중 허혈성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돼 빠르게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다. 하지만 혈관을 뚫는 재개통 치료는 뇌출혈과 같은 위험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정확한 환자 선별이 중요하다. 기존 진단 기술은 뇌영상, 혈관영상, 관류영상 등을 다중 촬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정확도도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혈관재개통 치료의 약 50%가 불필요하게 시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한 기술 개발이 시급했다.

• 불필요한 과정을 줄인 맞춤형 진단/평가

김현정 교수 연구팀의 기술은 한 번의 촬영으로 측부혈류영상과 혈관영상을 동시 생성하고, 혈관재개통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맞춤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연구팀은 임상연구를 통해 측부혈류영상 및 혈관영상 기술이 측부혈류지표, 초기 뇌경색 영역 및 진행가능 영역(허혈반응영)을 80% 이상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신기술은 기존 기술과 다른 정확성과 신속성으로 적시에 적합한 치료를 가능케 하며, 혈관재개통 치료의 무용률을 낮추고 환자의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밀 의료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 마침내

김현정 교수는 "뇌졸중은 대표적인 다빈도 질환으로서 이 기술이 응급 의료 시스템에 도입된다면 환자의 생명뿐 아니라 의료·사회적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CT 측부혈류영상 및 혈관영상의 상용화는 연구진의 기술을 세계화하는 과정에서의 가치를 넘어 세상과 사람의 삶을 바꾸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영상의학과 김현정 교수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아시아 최초 보건사목 전공 과정 개설

초고령사회 · 정신건강 위기 · 지역 돌봄 수요에 응답하는 전문 인재 양성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이 2025년 9월, 아시아 최초로 「보건사목 전공 과정(보건학 석사)」을 새롭게 개설했다. 이번 대학원 과정은 빠르게 변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과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초고령사회 진입, 자살 · 중독 · 정신질환 등 위기 상황의 심화, 그리고 지역 공동체 안에서

영적 돌봄을 제공할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라는 세 가지 과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보건사목 전공은 의료 현장은 물론, 천주교 본당과 지역 사회 곳곳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병원과 지역 공동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아 몸과 마음, 영혼을 아우르는 전인적 치유를 실천할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보건의료경영대학원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양성구현실, 한국 가톨릭원목자협회 주도로 개설된 보건사목 전공은 2016년 시작된 「한국가톨릭원목자 기초교육과정」(60시간, 317명 수료)을 기반으로 발전했다. 2021년 원목자 자격증 제도 도입 이후, 현장의 심화 교육 수요에 따라 2024~2025년 10차례 TFT 논의를 거쳐, 11개 핵심 교과목으로 구성된 대학원 과정으로 개설이 확정되었다.

핵심 교과목에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정책 ▲보건사목신학 ▲인간 이해와 전인치유 ▲보건의료인의 영성 ▲보건의료인

의 자기돌봄과 영적 성장 ▲인간 심리, 행동의 이해와 돌봄 ▲질병의 이해와 돌봄 ▲실존적 위기와 돌봄 ▲영적 돌봄 과정 연구와 임상 실천 ▲영적 돌봄 사례 연구 ▲임상윤리 사례연구가 포함된다. 이론과 더불어 임상 실습, 본당 현장 실습, 사례연구, 슈퍼비전(전문가 피드백)이 결합된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이다.

첫 신입생 모집은 2026학년도 보건의료경영대학원 입시를 통해 진행된다. 모집 요강은 2025년 10월 초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원서 접수는 11월 초, 면접 전형은 12월 초, 합격자 발표는 12월 말에 진행된다.

양성구현실장 김병만 신부는 “보건사목 전공 과정은 단순히 학문을 배우는 자리가 아니며, 고통과 상처 속에 있는 이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들의 회복과 치유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과정”이라며, “생명의 존엄성이 흔들리는 시대에 가톨릭교회와 사회가 함께 응답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이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재미있는 인제 이야기

추석 명절 음식, 어떻게 먹고 빼는 게 현명할까?

● 친근함 속 살인적인 칼로리, 명절 음식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에는 온 가족이 모여 우애를 다지는 만큼, 곁들일 음식도 빠질 수 없다. 하지만 대표적 추석 음식인 송편과 전 등의 명절 음식은

대부분 탄수화물과 기름 함량이 높아 열량이 높다. 또한 가족 간 화합의 장에서 반주가 곁들여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고칼로리 음식과 주류를 짧은 기간에 많이 섭취하면 단시간 내 체중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 갑자기 찐 살, 정말 살일까?

단기간에 갑자기 늘어난 체중은 체지방이 아닌 글리코겐과 수분 때문이다. 인체는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에너지를 사용하고 남은 것을 글리코겐이라는 에너지 형태로 간과 근육에 저장하는데, 이때 저장되는 글리코겐과, 함께 저장되는 수분이 늘어난 체중의 대부분을 담당한다.

● 글리코겐의 구성과 역할

글리코겐은 포도당 분자(글루코스)로 구성된 다당류 성분이다. 인체는 일반적인 경우 글루코스를 가장 먼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글루코스가 고갈되면 쌓아 둔 글리코겐을 글루코스로 분해하여 다시 에너지 창고를 채운다.

● 갑자기 늘어난 글리코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글리코겐은 장기간 칼로리 과잉이 지속되면 남은 에너지원이

지방으로 합성되어 체지방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기간을 글리코겐의 저장능력 한계인 2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다만 지방은 에너지원으로서의 효율이 글리코겐보다 훨씬 좋고, 그만큼 소모해 없애기가 더 어려워 그 이후로는 체중 감량이 더 어려워진다. 따라서, ‘급찐 살’은 2주 안에 빼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 안먹으면 바로 돌아올까?

많은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단식, 한 종류의 음식만 섭취하는 원푸드 다이어트 등 인체에 무리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추천하지 않는다. 오히려 글리코겐의 역할에 맞게, 에너지는 에너지로서 소모하는 것을 추천한다. 식이는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좋다. 추가로 각자의 취향에 맞추어 무/유산소 운동을 골라, 에너지 소모라는 형태로 글리코겐과 수분을 배출해야 한다.

(감수 :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손지영 임상강사)

생명의 신비상 공모

생명과학분야 / 인문사회과학분야 / 활동분야



접수기간 : 2025년 9월 1일 (월) ~ 10월 31일 (금)

수상자 발표 : 2026년 5월 3일 (일)

연락처 : 02) 727-2353, 02) 3147-9540





서울성모병원

갑상선 단일공 로봇수술 1,000건 기록

겨드랑이 작은 절개로 목 부위 흉터 無,
림프절 전이도 안전한 수술 가능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암병원 갑상선암센터가 8월 12일 단일공 로봇수술을 이용해 1,000번째 환자를 치료했다. 정밀한 수술로 일반 절개수술이나 복강경수술에 비해 수술 합병증을 줄이고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어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하기 위해 새로운 치료 접근 방법을 활발히 적용한 결과다.

서울성모병원에서 1,000건을 기록한 단일공 로봇수술은 겨드랑이에 작은 절개만으로 수술이 가능해 기존 활용되던 로봇수술보다도 흉터를 최소화해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최근 수술 시간도 약 1시간 정도로 짧아져 기존 수술법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고, 목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어도 단일공 로봇을 이용해 근치적 절제술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 갑상선 기도 옆에 있는 성대의 기능도 최대한 보존할 수 있으며, 수술 후 갈숨 저하를 예방하는 등 수술 후 환자의 불편감을 줄일 수 있다.

갑상선내분비외과 김광순 교수는 "단일공 로봇수술은 겨드랑이에 약 3cm의 상처만 남는 만큼 5~6cm의 상처가 발생했던 기존 로봇수술보다 통증과 불편감이 적을 뿐 아니라, 후두 신경 보존에도 유리해 수술 후 목소리 변화 등의 후유증도 기존 수술법 대비 현저히 적다."며, "특히 젊은 여성 환자가 많은 갑상선암에서의 단일공 로봇수술은 치료는 물론, 환자가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어 앞으로도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갑상선내분비외과 배자성 교수는 "경과가 좋은 갑상선암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추가 치료를 받게 하거나, 반대로 암이 있는데도 무시했다가 필요한 치료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중심의 치료에 집중해 왔다."며 "학업, 경제활동, 자녀양육 등 사회에서 활발히 생활하는 젊은 여성 환자들이 대다수인 만큼,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와 원활한 소통으로 수술 후 환자의 삶까지 생각하는 진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여의도성모병원

2024년 국내 기증 각막이식 전국 1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통계연보상
시행건수 전국 1위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 2024년 국내 기증 각막이식 건수 1위를 기록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올해 7월 공개한 '2024년도 장기 기증 기증 및 이식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기증 안구를 이용한 각막이식은 총 153건, 이 중 여의도성모병원이 19.6%에

해당하는 30건(뇌사 26건, 사후 4건)을 차지해 1위를 차지했다.

특히, 2024년 2월부터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부재 속에서도 여의도성모 안과병원 의료진은 직접 진해, 원주 등 먼 지역으로 찾아가 기증자 안구를 적출해 각막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이식을 시행했다.

또한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전통적인 전층각막이식 외에도 앞층판부분층각막이식(DALK) 4건, 데세메막박리내피세포이식술(DSEK) 11건, 내피세포이식술(DMEK) 11건, 각막윤부줄기세포 이식 2건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특히 ▲안구 전체를 적출하지 않고 각막만 적출하는 방법 ▲이동 중 장시간 각막을 4도씨로 유지하는 방법 ▲국내 기증각막으로



다섹(DSEK) 및 부분층각막용 각막 처리 방법 등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황호식 교수는 "각막이식은 단순한 의술이 아닌 생명과 시각을 되찾아주는 숭고한 의학적 행위"라며, "꾸준한 노력과 혁신을 통해 여의도성모 안과병원이 우리나라 각막이식을 계속해서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은평성모병원

의학 연구 선도

대규모 연구과제 연속 선정

은평성모병원 교수 2인, 과기정통부
개인기초연구사업 수행자로 발탁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안과 원재연 교수와 내분비내과 이정민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사업(국가이전연구·중견연구)에 연이어 선정됐다.

안과 원재연 교수는 연구주제 '난치성 망막질환 치료법 개발을 위한 3차원 세포 프린팅 기반 미세혈관-브루크막 모사

다층구조의 망막 모델 개발'로 국가이전연구에 선정됐으며, 2025년 9월부터 3년간 6억여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연구는 당뇨망막병증과 노인성 황반변성 등의 실명 유발 질환을 대상으로, 실제 인체와 유사한 3차원 안구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질환의 진행 과정을 규명하고, 신약 후보 물질의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연구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원재연 교수는 "이번 연구로 다층 구조의 망막 모델이 개발된다면 현재 치료제가 전무한 황반 위축을 동반한 말기 황반변성이나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해 실명된 환자들의 시력을 회복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분비내과 이정민 교수는 연구주제 '자산화 미세환경 변화에 의한 안소린유사성장인자신호 경로 분석 및 갑상선암병종의 치료 전략 개발'로 중견연구(창의연구형)에 선정돼 2025년 9월부터 3년간 2억 1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갑상선암병종은 자기관면역 반응으로 안와 조직에 염증과 부



원재연 교수



이정민 교수

종을 일으키는 질환이며, 현재 사용되는 치료제는 효과가 제한적이고 재발과 부작용 문제가 크다. 이정민 교수는 환자 유래 세포와 동물 모델을 활용해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IGF-1R 신호 경로와 이에 관여하는 핵심 단백질들의 작용 기전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 개인별 특성에 맞춘 치료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정민 교수는 "갑상선암병종으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치료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성의교정

간호대학 재학생 66명, 꽃동네에서 1박 2일 봉사활동



간호대학 재학생 66명이 충청북도 음성에 위치한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참가 학생들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봉사활동 전 과정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체득하고, 현장에서의 간호 실천 역량을 키우는 기회를 가졌다.

의생명과학고실 제1회 '의생명담(談)' 학술제 성료



의과대학 의생명과학고실이 주최한 제1회 학술제 '의생명담(談)'이 지난 8월 29일 개최됐다. 이번 학술제는 기초의학 연구에 매진하는 교수진과 대학원생들의 지식 공유와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학술제에서는 CRISPR 유전자 가위 기술·세포치료용 고분자 하이드로겔·원자 공유 결합 등 다양한 기초의과학 분야를 아우르는 심도 있는 발표 및 토의가 진행됐다.

서울성모병원

나프로임신센터, 건강한 임신·출산 위한 나눔을 더하다



서울성모병원 나프로임신센터는 지난 8월 19일 남유에프엔씨 남유숙 대표로부터 임신/출산 축하 선물세트 전달식을 가졌다. 기부를 진행한 남유숙 대표는 "아이의 탄생은 한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축하해야 할 축복이고, 이번 선물이 앞으로 나프로임신센터를 통해 기쁜 소식을 맞이할 부부들에게 따뜻한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여의도성모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2025 자살예방 캠페인 개최



여의도성모병원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9월 10일)을 맞아, 지난 9월 9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교직원들이 자살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도록 마련됐다. 여의도성모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매년 자살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개최하며 생명 존중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성모병원

'건강밸런스 캠페인' 개최



의정부 성모병원은 9월 10일 경기도청, 경기도영양사회, ㈜미셀푸드 후원으로 '덜짜고 덜달게 내 몸이 생생' 건강밸런스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 주민들의 건강한 식습관 정착과 식생활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올바른 식생활 정보 소개, 저당 음료 시음회, 영양상담, 조리 관련 Q&A 등으로 구성됐으며,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식습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천성모병원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NGS) 축복식 시행

부천성모병원은 최신 차세대 염기서열분석기(NGS)인



Genexus를 도입, 이에 대한 축복식을 김범준 세례사요한 영성부원장 신부의 주례로 진행했다.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는 기존 장비에 비해 소량의 샘플로 보다 신속하고 높은 정확성으로 유전자 변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암·희귀질환·유전질환의 조기 진단과 맞춤형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은평성모병원

심장혈관병원, '심장의 날' 건강강좌 성료



은평성모병원 심장혈관병원 주최로 열린 '심장의 날' 건강강좌가 9월 16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강좌는 주민들의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 및 관리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장혈관병원장 및 교직원들은 심부전증, 심장수술의 안전성, 심혈관계 질환 약물관리 및 영양관리 등의 정보를 폭넓게 전달했다.

인천성모병원

'제3회 연명의료결정제도 바로알기 캠페인' 성료



인천성모병원은 최근 '2025년 제3회 연명의료결정제도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환자와 보호자, 내원객,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 OX퀴즈 이벤트, 응원 메시지 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동정



* 기관별 / 가나다 순

IJSC 우수논문상



기초의학사업추진단 김기표 교수가 2025년 한국줄기세포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IJSC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이는 한국줄기세포학회에서 매년 단 한 명의 연구자에게만 주어지는 권위 있는 상으로, 줄기세포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낸 연구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구연·포스터 최우수상



간호대학 김수정 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연구팀 2팀이 모든 최우수상을 받았다. 김문영 박사과정생은 <신생아중환자실 완화 간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를 발표해 최우수 구연상을,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과정생인 이승지, 전해인 간호사는 <Serious Health Related Suffering 을 이용한 국내 완화의료 필요도와 정책 제언> 연구를 통해 최우수 포스터상을 받았다.

2025 아시아 결핵 미래 연구자상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민진수 교수가 '제8회 아시아 결핵퇴치협력포럼'에서 '2025 아시아 결핵 미래 연구자상(Asia TB Future Investigator Award)'을 받았다. 민 교수팀은 핵 환자의 당뇨병 동반 여부와 혈당 조절 상태가 치료 성공률과 사망 위험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젊은 연구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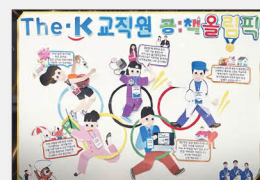
서울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유인영 교수가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제28차 학술대회에서 '젊은 연구자상'을 받았다. 이 상은 임상미생물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와 향후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은 연구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유 교수가 감염질환의 진단 및 항생제 내성 기전 연구에 매진해 온 점과 환자 진료에 꾸준히 기여한 점이 공식적으로 평가받은 성과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은평성모병원 장기이식병원 홍석진 팀장이 '제8회 생명나눔 주간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홍석진 팀장은 각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장기이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해 왔으며, 뇌사자 발굴과 예우, 생체 장기이식 지원, 장기기증 인식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공모전 대상



인천성모병원 이은선 간호사가 한국교직원공제회 주최 '공·책: 손으로 만드는 공제회 이야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이은선 간호사는 교직원공제회의 복지 혜택과 제도를 각각 하나의 링과 캐릭터에 담아 표현해 공제회가 회원들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뒷받침한다는 메시지를 따뜻하면서도 창의적으로 전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가뭄 겪는 강릉에 생수 10톤 지원

천주교 춘천교구 통해
식수 10톤 직접 전달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이 극심한 가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긴급 지원을 펼쳤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지난 9월 3일, 천주교 춘천교구를 통해 생수 약 10톤을 현지에서 직접 전달하며, 식수 부족으로 고통을 겪는 지

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했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물품 기부를 넘어,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한다'는 가톨릭 영성을 실천한 사례다. 생수는 강릉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용수와 식수 공급에 활용될 예정이다.

강릉시는 최근 수십 년간 보기 힘든 극심한 가뭄으로 국가 차원의 특별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이다.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식수 공급의 마지막 기준선인 15% 아래로 떨어지면서 제한 급수가 시행됐다. 물이 부족해 가정에서의 생활만이 아닌 농업용수 공급에도 큰 차질이 발생해 주민들의 생활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생수 지원은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사회공헌 조직인 가톨릭메디컬엔젤스(Catholic Medical Angels, 이하 CMA)가 주관했다. 이 조직은 가톨릭 정신인 '생명 존중'과 '인간사랑'을 바탕으로 설립되어, 평소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는 빠른 대응으로 이웃을 돕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민청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작은 힘이지만 강릉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극심한 가뭄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추후 가뭄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추가 지원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동생을 향한 사랑, 이웃을 위한 나눔 유인촌 기부자, 유경춘 티모테오 자선기금으로 1억 원 기부

유인촌 기부자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자선기금에 1억 원을 기부했다. 기부금 전달식은 지난 8월 29일 오전 10시에 진행되었으며, 유인촌·강혜경 기부자 부부와 윤승규 전 서울성모병원장 최예원 시몬 행정부원장, 이인석 소화기내과 교수, 남영희 프라우스 사회사업팀장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는 지난 8월 15일에 선정한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님 치료를 위해 헌신한 서울성모병원의 의료진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진행되었다. 기부금은 '유경춘 티모테오 자선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전용 기금을 신설해 병원을 이용하는 성직자와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유인촌 기부자는 "생전에 성직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깊은 애정을 가졌던 동생의 뜻을 이어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며 기부 소감을 전했다. 윤승규 전 병원장은 "고인의 뜻을 담은 귀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부금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나눔을 잇다, 희망을 짓다 의료원 후원회사무국, 슬로건·아이덴티티 공개

가톨릭중앙의료원 후원회사무국이 지난 9월 24일, 새로운 슬로건 '나눔을 잇다, 희망을 짓다'와 함께 아이덴티티를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기부 문화 확산과 함께 후원회사무국의 정체성과 비전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슬로건은 지난 5월에 진행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부천성모병원 간호교육 Unit 남은미 UM01 제출한 작품인 '나눔을 잇다, 희망을 짓다'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데 이어 공식 슬로건으로 채택됐다.

'나눔을 잇다'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람과 마음을 연결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희망을 짓다'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설계해 가는 기부의 가치를 강조한다. 후원회사무국은 이러한 나눔이 모여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지도록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슬로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아이덴티티는 기부를 '희망의 다리'로 표현했다. 로고의 가로획은 '기도하는 손'을 형상화해 따뜻한 메시지를 담았고, 삼벌 중앙의 '십자가'는 가톨릭의 영성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후원회사무국은 슬로건과 아이덴티티를 이용해 더 많은 이들이 기부의 가치에 공감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함께할 수 있도록 장려할 예정이다.

2025년 8월 신규 약정자 명단



가톨릭중앙의료원

박성원, 김희진	100,000,000원
최신원	100,000,000원
임연자	2,000,000원
익명1	500,000원
만병진	1,000,000원
김우정	50,000원
익명2	20,000원
익명3	10,000원
최다연	매월 500,000원
심인영	매월 40,000원

대학(성외교장)

박주현	50,000,000원
(제)삼공장학재단	24,444,000원
(제)아신사회복지재단	10,000,000원
재단법인 가톨릭재단	5,000,000원
재단법인 돈암장학회	4,074,000원
정수장학회	4,074,000원
안양만안네마음금고장학회	2,000,000원

대한산업보건협회(사)

(주)더블유앤에이치	1,200,000원
해성문화재단	1,000,000원
김은진	50,000원

서울성모병원

유인촌	100,000,000원	이달순	20,000,000원
(주)한솔			10,000,000원
송기현소아청소년과			10,000,000원
이정호			10,000,000원
(주)남유애브엔씨			2,301,875원
백정희	1,000,000원	좌성현	1,000,000원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508,000원
신용철	500,000원	주중록	350,000원
홍후조	200,000원	경유미	150,000원
익명1	100,000원	유한태	50,000원

전성호	10,000원	익명2	매월 50,000원
백옥희	매월 30,000원	윤연수	매월 30,000원
김명자	매월 20,000원	박기정	매월 20,000원
송미화	매월 20,000원	외배려아	매월 20,000원
익명3	매월 20,000원	금예지	매월 10,000원
안초롱	매월 10,000원	이철재	매월 10,000원
익명4	매월 10,000원	배근주	매월 5,000원
윤형주	매월 5,000원		

여의도성모병원

김세린	1,000,000원	조인기	1,000,000원
황희현	1,000,000원	(주)테바코리아	500,000원
장해리	100,000원	차현희	매월 30,000원

와정부성모병원

김은주	매월 10,000원	이선주	매월 5,000원
-----	------------	-----	-----------

부천성모병원

이창모	2,000,000원	오사라	150,000원
박자선	60,000원	조경아	60,000원
황유리	60,000원	석희주	매월 1,000원

은평성모병원

정예경	10,000,000원	익명	5,000,000원
주식회사명일컫튼월			3,000,000원
윤연식	500,000원	임오순	500,000원
김경진	매월 30,000원		
은평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팀	매월		10,000원
추길자	매월 10,000원		

가톨릭중앙의료원 후원회사무국 발전기금팀

TEL, 02-2258-7992~3, 7995~6 FAX, 02-2258-7994 E-mail, cmcfund@catholic.ac.kr 카카오톡, "CMC 발전기금" 검색

▶ 생명존중기금(일반후원) 입금 계좌: 우리은행 1005-700-920886 (예금주: 가톨릭중앙의료원)



모바일 후원
바로 가기

간호
대학

서울 3개 간호대학, 학술 교류 프로그램 개최

가톨릭대학교,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회에서 공동 주최하는 '서울 3개 간호대학 학술 교류 프로그램'이 지난 8월 18일 오후 2시,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가톨릭대학교 이선미 간호대학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학생회의 주관하에 3개 대학 학생회의 공동 기획으로 마련돼, 학부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학문적 성과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장을 제공했다.

이번 교류 프로그램에는 총 6명의 학생이 참여하며, '노인 건강과 간호', '국제 및 지역 사회 간호', '미래 간호와 기술', '정신 건강', '간호 윤리'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학교와 학년을 넘나드는 11개 팀이 구성되었고, 각 팀은 포스터 발표를 준비하며, 행사 당일에는 7분간의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발표에 앞서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사전 포스터 투표가 진행되어, 학생들의 평가가 심사에 반영되었다. 최종 심사는 각 대학에서 초청한 교수진과 학생 투표 결과를 합산해 진행됐으며, 1등(10만 원), 2등(7만 원), 3등(5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홍콩대 간호학생 초청 국제교류 진행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은 지난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홍콩대학교 간호대학 학생 5명을 초청해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시작된 가톨릭대학교와 홍콩대학교 간 정기 교류 프로그램으로, 매년 양국 학생들이 번갈아가며 상대 학교를 방문해 보건 의료 환경과 간호 교육 체계를 상호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톨릭대학교 캠퍼스 투어를 시작으로 KOICA의 해외보건의료 프로젝트와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 방문을 통해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과 말기 환자 돌봄 체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됐다. 또한 보건소와 병원 실습 현장을 견학하며 한국 의료시스템의 실제 운영을 살펴보고, 노인요양원과 호스피스병원 방문을 통해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학습했다. 마무리로는 양국의 보건의료 체계 및 간호교육을 비교·발표하며 교류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후 오는 2026년 1월 경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학생들이 홍콩대학교를 방문해 현지 간호 교육 및 보건의료 시스템을 탐방하고 국제적 시야를 넓히는 프로그램이 이어갈 계획이다.



인천성모병원

조혈모세포이식병동 개소 후 첫 이식 성공

수도권 서북부, 조혈모세포이식분야 안정성과 치료 역량 확보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지난 6월 조혈모세포이식 병동 개소 이후 첫 조혈모세포이식에 성공했다.

첫 이식 환자는 20대 B씨로, 평소 건강했으나 내원 2주 전부터 소변 색이 짙어지고 구역·구토 증상이 나타났다. 혈

액검사에서 아세포가 관찰돼 인천성모병원으로 의뢰됐으며, 검사 결과 T세포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과 전신 림프절 침범이 확인됐다.

이종혁 인천성모병원 혈액내과 교수는 다약제 병합 항암 화학요법으로 관해유도요법과 공고요법을 차례로 시행했고, B씨는 관해를 획득했다. 미세잔존질환 측정 결과, 골수 내 암세포는 진단 시 90%에서 0.01% 미만으로 크게 줄었다. 이어 7월 말 조혈모세포이식을 진행했고, 이식 12일째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가 회복하며 성공적인 생착이 확인됐다.

양승아 인천성모병원 혈액센터장(혈액내과 교수)은 "B씨의 경우 첫 번째 관해유도요법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지만, 약제를 변경해 2차 관해유도요법에서 성공을 거뒀다. 항암 치료 중 발생한 폐렴도 감염내과와 함께 신속히 대응해 컨디션을 유지한 덕분에 순조롭게 이식 과정까지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홍승모 몬시놀 인천성모병원장은 "이번 첫 성공 사례는



인천성모병원이 조혈모세포이식 분야에서 안정성과 치료 역량을 모두 갖췄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수도권 서북부 지역 중증 혈액질환 환자들에게 최상의 치료와 회복 환경을 제공하는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성빈
센터

지역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보폭 확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터병원이 지역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핵심진료협력병원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며, 지역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보폭을 넓혀 가고 있다.

성빈센터병원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등 핵심진료협력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 협약을 체결

했다. 협약식을 통해 연계 진료시스템 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 전문·의뢰 화송 시스템 활성화 등 상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진료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체화와 협업 강화를 본격화했다.

정진영 성빈센터병원 의무원장은 "이번 협약이 경기 남부 지역에 환자 중심 의료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성빈센터병원은 지역 중추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진료 연속성과 효율성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전
성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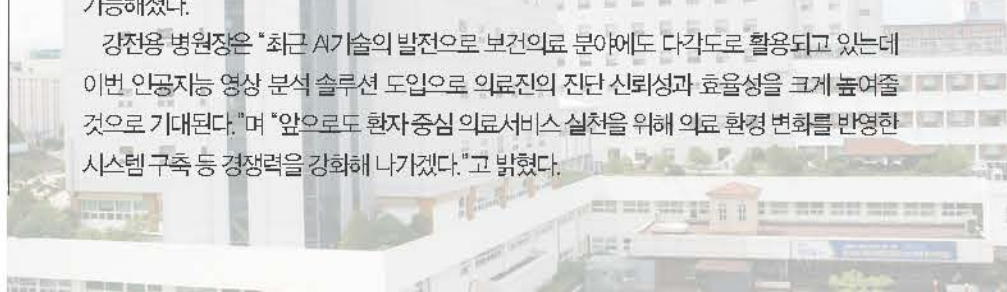
폐암·유방암 AI 의료영상 분석 솔루션 도입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이 암 진단의 정확도와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영상 분석 솔루션을 도입,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해당 솔루션은 검사 영상을 자동 분석해 판독 효율을 높여주는 판독 보조 소프트웨어로, 대전성모병원은 이달부터 지역 병원 최초로 폐암의 진단 보조 및 분석에 활용한다.

적용 대상은 흉부 CT에서 폐암이 의심되는 만 19세 환자로, 인공지능 폐암 진단 솔루션 루카스 플러스(LUCAS plus)를 적용해 암 사망률 1위로 조기 진단이 필수인 폐암의 진료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의료영상에서 추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악성 가능성 제시 등 진료에 참고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공, 의료진의 최종 진단과 환자 관리방향 결정을 보조한다. 이를 통해 위음성 판정 폐암 등 일부 판독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솔루션 도입으로 유방촬영영상(x-ray)에서 유방암이 의심되는 석회화·종괴를 효과적으로 검출하고, 유방암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방치밀도까지 정량적으로 분석이 가능해졌다.

강전용 병원장은 "최근 AI기술의 발전으로 보건의료 분야에도 다각도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번 인공지능 영상 분석 솔루션 도입으로 의료진의 진단 신뢰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실천을 위해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스템 구축 등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래 최초 단일공 비뇨기 로봇수술 1,000례 달성

환자 삶의 질을 지키는 K-메디컬의 새로운 기준



✓부분신장절제술 425건 ✓레치우스 보존 전립선절제술 ✓환자 맞춤 치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가 아시아 태평양 최초로 단일공(SP) 비뇨기 로봇수술 1,000례를 돌파했다. 이번 성과는 수술 난도가 높은 신장암과 전립선암을 중심으로 환자별 맞춤 술기를 적용하며 이뤄낸 결실로, 국내외 환자들에게 첨단 의료서비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난도 수술인 '단일공 부분신장절제술'이 전체의 43%(425건)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신장암 환자에게 있어 신장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은 수술 후 투석 위험을 줄이고 삶의 질을 지키는 핵심 과제다. 서울성모병원 의료진은 혈관을 차단한 상태에서 빠르고 정밀하게 암을 절제하는 고난도의 술기를 통해 환자들의 신장 기능을 보호하며 수술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전립선암 분야에서도 혁신은 이어졌다. 국내 최초로 '레치우스 보존 전립선절제술'을 단일공 로봇수술에 접목시켜 요실금, 발기부전 등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합병증을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다. 단일공 로봇수술은 골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전립선을 정밀하게 절제하는 장점을 극대화하며 환자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

한편, 홍성후 교수는 단일공 신장암 수술의 안전성과 효과를 학술적으로 입증해 국제 학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그는 허혈시간을 단축시키면서도 기존 다공 수술과 동등한 성과를 보여주며, 단일공 로봇수술의 가능성을 넓힌 권위자로 평가된다. 홍 교수는 "단일공 로봇수술 1,000례 달성은 환자의 안전과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환자 개개인에 최적화된 맞춤 치료를 제공해 K-메디컬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단순히 수술 건수를 넘어, 서울성모병원이 환자 중심의 최첨단 의료 실현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외래, 병동, 수술실 등 의료진과 스태프 모두의 헌신이 뒷받침된 결과이며, 앞으로도 국내외 전 세계 환자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려움 없이
진리를 향해

여의도성모병원을 만나는 쉬운 번호

☎ 1661-7575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획득

www.cmcsungmo.or.kr



생명 존중 영성으로

진료·연구·교육·봉사를 조화롭게 하면서

소중한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여의도성모병원의 소임이며 비전입니다.

〈2025년 9월 4일 병원장 취임사 중〉

☑ 성장 동력 최우선

☑ 핵심역량 집중

☑ 연구 친화적 환경

☑ 효율과 질 ↑

☑ 영성기반 ESG

☑ 교직원 화합

제37대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

강원경



▶ Youtube meet the Yeouido St. Mary's Hospital





전화예약
1661-7500
평일 -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8시~오후 12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 획득

www.cmcujb.or.kr

의정부성모병원 이태규 병원장, 동두천소방서 방문



기자 간담회



의정부 보건소장 방문



취임식



의정부시장 면담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장 신경외과 이태규 교수가 지난 15일 동두천소방서를 방문해 소방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태규 병원장은 소방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격려의 마음을 담은 간식을 함께 전달했다. 신경외과 전문 의인 이 병원장은 진료부원장 시절에도 동두천소방서를 찾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다져왔다.

이태규 병원장과 최문석 동두천소방서장은 소방대원들의 현장 활동과 응급 환자 이송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응급 상황 발생 시 환자 분류 및 이송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소방대원들의 건강 관리와 의료 지원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진행했다. 이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의정부성모병원은 지역 사회와 상생하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태규 병원장은 "생명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소방대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동두천소방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응급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천성모병원을 만나는 쉬운 번호

1577-0675

영 우 지 리



건강, 그 이상의 행복 실현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획득

www.cmcbucheon.or.kr

최신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NGS) 도입

정밀 의학 기반 · 맞춤형 환자 진단과 치료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이란?

몸에서 떼어낸 암 조직이나 혈액을 통해 신속·정확하게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 암의 진단과 치료 방침, 예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검사

최신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 특징

- 소량의 검체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 30시간 이내 유전자 변이 확인
- 500여 종의 유전자를 동시에 분석

적용 분야

- 암 진단 및 치료
 - 암 환자 맞춤형 표적치료 및 면역항암제 반응 예측, 약제 내성 원인 분석, 재발·전이 모니터링에 활용
- 유전질환 진단
 - 유전자 변이로 인한 희귀 질환 유전질환의 원인 규명 및 진단



최신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



전화예약
1811-7755

평 일 :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8시~12시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PP인증획득

www.cmcep.or.kr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특별한 공간 은평성모병원 **VIP 병동** 오픈!



VIP병동 (본관 16층)

자연의 품 속, 세심한 배려가 함께하는 치유의 공간



- ✓ 사계절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청명한 북한산뷰
- ✓ 호텔식 객실로 보호자 전용 침대 및 대형 TV 구비
- ✓ 병동 내 아늑한 휴게 공간과 중앙 라운지 조성
- ✓ 임상영양사가 직접 관리하는 맞춤형 영양관리
- ✓ 입원기간 무료주차·하이패스 수납서비스 제공